



“집념의 세계인” 양성의 요람 금호아시아나 인재개발원



사진 | 신현식 인재개발원장

이번 탐방은 그룹의 경영이념과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임직원들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지식경영의 핵심요새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금호아시아나 인재개발원을 방문하였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대대리에 위치한 인재개발원은 국내 유명골프장 중의 하나인 아시아나 컨트리 클럽과도 인접해 있어 아름다운 숲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탁 트인 전망과 맑은 공기,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글 | 오정규 협회 경영기획부 과장





쾌적한 환경과 최신 시설 갖춰

‘비전경영’ 달성을 위한 ‘집념의 세계인’을 양성한다는 교육목표를 갖고 있는 금호아시아나 인재개발원은 지난 1996년 12월 설립되었다. 박정구 그룹 회장이 초대 원장에 취임할 정도로 인재개발에 경영진의 관심이 높아 쾌적한 환경과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다. 멀리서 바라보면 푸른 숲속의 고색창연한 붉은 벽돌 외관이 마치 중세의 오래된 성을 연상시킨다. 지상 4층 지하 2층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연면적 15,782㎡에 강의실(13), 숙박시설(112), 세미나실(2), 사우나, 식당, 운동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331명을 수용하는 대강당 금호홀은 대규모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최신 영상시설을 갖추고 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은 내부교육과 공개교육으로 구분된다. 내부교육으로는 그룹 내 전문가 양성을 위해 마케팅, 금융, 테크노 분야에서 전문 MBA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계열사별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올해에만 109종류의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공개교육은 민간교육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공직자 위탁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개설한 온라인 교육시스템인 사이버교육과 통신교육 과정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그룹 내 전 임직원과 외부 고객이 온라인을 통해 교육신청 및 결과 조회까지 가능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누구든지 자신의

교육정보를 볼 수 있다. 또한 인재개발원 직원들도 담당업무 분야의 이슈 및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작성하는 등 내부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어려움을 극복

어려움도 많았다. 인재개발원 설립 다음해에 불어 닥친 IMF로 그룹 내 직원교육이 전무하다시피 하고, 당시 갓 채용한 신입직원 200명에 대해 교육은 고사하고 채용마저 취소하고 집으로 돌려보냈을 때는 암담한 기분마저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활로를 모색하던 중 시작한 공무원 연수교육이 계기가 되어 위기를 기회로 극복했다고 한다.

아시아나항공과 리조트 사업을 통해 체득한 서비스 마인드를 교육에 접목시킴으로써, 1997년 이후 행정자치부로부터 공무원 선택전문과정 평점 인정 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정부의 각 기관으로부터 기관 평가 우수훈련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민관교육 교류 및 국가사회 발전의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받는 등 7회의 크고 작은 표창도 받았다. 지금까지 이곳을 거쳐 간 공무원은 모두 9만여 명으로, 매년 약 1만여 명의 공무원들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IMF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애사심이 회사경영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경영진이 절감한 것도 위기극복 과정에서 얻은 큰 성과라고 한다. 이에 회사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을 갖는 데에는 배우자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생각에 임·직원들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금호아시아나가족 문화교실을 2박 3일 일정으로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처음엔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보던 직원들도, 횡수가 늘어감에 따라 입소문이 퍼져 이제는 신청시 선착순을 기다릴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한다.

환경과 안전을 최우선

지난 7월 새로이 부임한 신현식 인재개발원장은 환경과 안전 분야의 전문가이다. 부임 전에는 그룹의 환경안전부문을 총괄하였고, 현재 방재전문기관인 한국화재보험협회 자문위원과 대한상공회의소 환경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을 정도로 안전과 환경 분야에 관심이 많다. 부임 후 가장 먼저 한 일도 유사시 신속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피난유도등과 경보장치를 최신형으로 교체한 것이다. “안전관리는 평소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점검시 나타난 문제점은 즉시 해결한다.”고 힘주어 말하는 그는 교육제도 및 프로그램 연구개발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룹의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계열사의 역량 강화가 필수이며, 계열사 각각의 특색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다.

견실하고 신뢰받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있는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

‘인재양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러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금호아시아나 인재개발원이

‘업계 최고 1등의 기업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인재 육성’이라는 비전을 달성하여

세계적인 연수기관으로

우뚝 서길 기대하며 탐방을 마쳤다. ☺

